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가스산업과 김용래 과장, 이정주 사무관(2110-5469)

호주産 LNG 20년간 연 350만톤 도입한다

- 호주와 최초 장기 LNG 도입계약, 국내 LNG소비의 11% 충당

- 15% 지분 투자 병행 , 非전통가스 진출 기대, 자주개발율 3%↑

- LNG선박(4척) 발주권 확보, 도입물량 100% 再판매 가능

□ 지식경제부(장관:최경환)는 **호주에서 생산되는 年 35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(이하 LNG)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**

○ **12.17일(금),** 한국가스공사는 호주 GLNG(Gladstone LNG)社*와 **'15년부터 20년간 年 350만톤의 LNG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음**

* GLNG: 산토스 37.5%(호주), 페트로나스 35%(말련), 토탈 27.5%(프랑스)

○ 同 도입계약과는 별도로 한국가스공사는 **GLNG 프로젝트의 가스전 및 액화플랜트에 대한 15% 지분인수계약도 체결하였음**

□ 금번 도입계약은 '07년 카타르 LNG 도입계약 이후 **3년만에 체결된 신규 장기계약**으로 **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 안정에 많은 도움**을 줄 것으로 기대

* 도입예정물량 350만톤/年은 우리나라 **연간 소비량의 11%에 해당**

○ 특히 금번 도입계약은 **호주와 체결되는 최초의 장기도입계약***으로 **중동·동남아에 치우친 도입선****을 다변화하여 공급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**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* **호주로부터는** '03년부터 중기계약을 통해 **연 50만톤 도입 중**

** 현재 카타르, 말레이시아, 오만, 인도네시아 **4개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천연가스가 총 수입량의 80% 차지** (상세자료 첨부)

□ 한편, GLNG 프로젝트는 **세계 최초의 비전통가스(Unconventional Gas)* LNG 프로젝트** 중 하나로서, **동 프로젝트의 지분참여(15%)를 통해 미래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하게 될 비전통가스 분야에 진출이 가능**할 것으로 기대됨

* 혈암층의 셰일(Shale)가스, 석탄층에 포함된 석탄층 가스(Coalbed Methane), 저류지층에 매장된 치밀가스(tight sand gas) 등 **전통적인 수직시추 방식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지층에 포함된 가스를 총칭**

○ 우리나라의 전문인력을 동 프로젝트에 직접 파견할 예정이며, 천연가스 **자주개발율도 약 3% 향상**될 것으로 보임

* 가스공사 지분 획득 후 GLNG프로젝트의 최종 지분구조: 산토스(호주) 30%, 페트로나스(말련) 27.5%, 토탈(프랑스) 27.5%, 가스공사(한국) 15%

□ 금번 계약은 **최근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(Buyer's Market) 하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**

○ 특히 금번 계약에 따라 유가 상·하한 밴드가 적용되면,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상승하더라도 **LNG 도입가격의 급등은 막을 수 있어 고유가의 충격 완화가 가능해짐**

* LNG 가격은 통상 원유가격에 연동되어 유가상승시 LNG 도입가격도 상승

- 예를 들어 유가가 100불까지 상승하더라도 일정수준 유가(약 90불)까지만 기본 가격식이 적용되고, 그 이상의 유가 상승시에는 LNG 가격의 상승률이 낮아지도록 설계됨

○ 또한 통상적으로 LNG 계약에서 구매자는 약정물량을 100% 인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반해, 일정 물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도입할 수 있는 권리 및 약정물량을 다른 나라에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**도입의 경직성을 완화**하였음

- 이에 따라 **급작스러운 수요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용이**해질 것으로 보임

○ 계약에 따라 GLNG 계약물량 수송을 위해 이용하게 될 **LNG 선박 4척의 발주권도 한국이 보유**하게 되어 국내 조선사 및 국내 해운사의 선박건조 및 운영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조선 및 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

[참고1] GLNG 프로젝트 개요

□ 호주 동부 Queensland 내륙에 위치한 석탄층가스전을 개발하여, LNG로 액화·수출하는 사업

* CBM: 석탄에 흡착되어 있는 메탄가스 (Coal-bed methane 또는 Coal Seam Gas)
* 액화기지 위치: 호주 퀸즈랜즈 주 항구도시 Gladsto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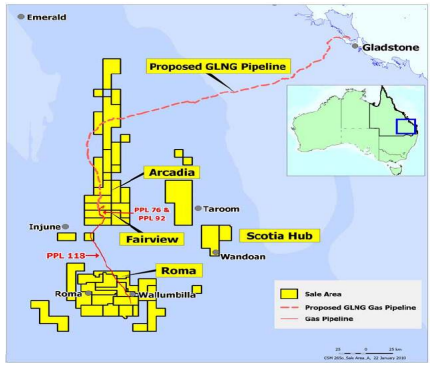
□ 프로젝트 개요

○ 상류(가스전) : Fairview 등 4개 주요 가스전

* 예상매장량(NSAI, '10.10월말 기준 : 5.4Tcf(2P), 7.6Tcf(3P))

○ 주요주주사

- Santos 37.5%, Petronas 35% Total 27.5%
- 가스공사 참여시 지분은 Santos 30%, Petronas 27.5%, Total 27.5%, 가스공사 15%로 변경



○ 파이프라인 : 가스전에서 Gladstone까지 약 422Km 배관 건설, 운영

○ 하류(액화플랜트) : 360만톤/년 × 2train

○ Marketing 현황

- 가스공사: 300만톤(기본) + 50만톤(옵션)
- 페트로나스: 300만톤(기본) + 50만톤(옵션)

□ 향후 추진 일정

○ 최종투자의사 결정(FID) 및 시공계약(EPC) : '11.1월말

○ LNG 생산 : '15년(제1트레인), '16년(제2트레인)

[참고2] 국가별 LNG 도입현황

구 분	2010년(예상치)			2009년		
순 위	물량(천톤)	국 가	비중(%)	물량(천톤)	국 가	비중(%)
1	7,388	카타르	22.1	6,973	카타르	27.0
2	5,595	인도네시아	17.1	5,874	말레이지아	22.7
3	4,994	말레이지아	14.9	4,551	오 만	17.6
4	4,576	오 만	13.7	3,084	인도네시아	11.9
5	2,996	러시아	9.0	1,314	호 주	5.1
6	1,663	예 멘	5.0	1,143	적도기니	4.4
7	1,035	적도기니	3.1	1,017	러시아	3.9
8	1,031	호 주	3.1	675	트리니다드	2.6
9	998	이집트	3.0	530	브루나이	2.1
10	967	나이지리아	2.9	239	이집트	0.9
11	846	브루나이	2.5	186	예 멘	0.7
12	608	트리니다드	1.8	176	나이지리아	0.7
13	258	UAE	0.8	60	알제리	0.2
14	173	미 국	0.5			
15	121	노르웨이	0.4			
16	64	벨기에	0.2			
전 체	**33,434**		**100**	**25,822**		**100**

* 자료 : 관세청 (12월은 가스공사 예측치)

[참고3] 2009년 세계 LNG 생산 현황 (총 17개국 178백만톤)

순 위	국 가	생산량 (백만톤/ 년)	생산비중
1	카타르	36.4	20.4%
2	말레이시아	21.7	12.2%
3	인도네시아	19.1	10.7%
4	호 주	17.8	10.0%
5	알제리	15.4	8.6%
6	트리니다드&토바고	14.5	8.1%
7	나이지리아	11.8	6.6%
8	이집트	9.4	5.3%
9	오 만	8.5	4.8%
10	브루나이	6.5	3.6%
11	UAE	5.2	2.9%
12	러시아	4.9	2.7%
13	적도기니	3.5	1.9%
14	노르웨이	2.3	1.3%
15	미 국	0.6	0.4%
16	리비아	0.5	0.3%
17	예 멘	0.3	0.2%
전세계	-	178.4	100.0%

* 자료 : BP 통계('10년판)